

고하 송진우 선생 탄신 126주년 추모식

追慕辭

2016. 5. 9.(월) 11:30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오늘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탄신 126주년을 맞이하여 선생님이 남기신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위국헌신정신을 기리고 그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평생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삶을 살다 가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고하 송진우선생 기념사업회 김창식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하 선생님께서는 교육자로서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실력양성론을 전파하셨으며 언론인으로서 일제 치하에서 국민계몽과 인재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헌신하셨습니다.

또한 민족대표 48인으로서 3·1운동을 적극 계획하신 협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셨습니다.

3·1운동 후 동아일보 사장으로 취임한 선생님은 일제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물리치고 언론의 정도를 걸으며 조국의 독립을 도모하셨으며 광복 후에는 자유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선진 사상과 경륜을 펼치시며 부강한 조국을 이루어 내고자 진력하셨습니다.

이처럼 선생님께서는 일제의 혹독한 탄압에도 불굴의 정신과 확고한 신념으로 조국의 자주 독립과 민주주의 창달에 외길로 매진하시어 애국혼의 표상으로 우뚝 서 계십니다.

민족의 큰 지도자이신 고하 선생님!

선생님을 비롯한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자존을 지킬 수 있었고 지금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광복 후 6.25전쟁과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등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불

안정 속에서도 발전된 대한민국을 이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화 속의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한층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의를 위해 살신성인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온 국민이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도전과 갈등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기 위한 가장 훌륭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결국 장군님께서 민족통합을 통해 하나의 한반도를 만들고자 하셨던 염원을 실현하는 길과도 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그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화합의 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생님께서도 저희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하 송진우 선생님님의 영전에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16. 5. 9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윤 종 오